

■ 민주 당권 도전 광주 지역구 강기정·이용섭 의원 지상토론

# “당명빼고 다 바꾸자” “공천혁명 이루겠다”

9일 민주당 5·4 전당대회에서의 당 대표 경선 후보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본격적인 당권 경쟁이 시작됐다. 김한길, 신계륜, 이용섭 의원 등 4명이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12일 컷-오프를 통해 당권 주자를 3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당권 경쟁에는 광주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기정(북구 갑), 이용섭(광산을) 의원이 동시에 도전장을 던져 컷-오프 결과와 본선 진출시 당권 확보 여부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일보는 서면 질의를 통해 당권 경쟁에 나서는 두 후보의 지상 토론을 마련했다.



강기정 의원



이용섭 의원

-당 대표 도전의 배경은.  
▲강=박근혜 정부 5년보다 더 두려운 것은 혁신하지 못한 민주당의 5년 뒤다. 패배의식, 무기력, 분열에 빠진 민주당을 생사를 걸고 혁신시키겠다. 지난 대선에서 90% 이상의 지지를 보내줬던 사·도민의 분노를 민주당의 이름만 빼고 모든 것을 뜯어 고치는 대혁신으로 보상해 드리겠다.  
▲이=기존 질서와 낡은 시스템을 파괴하는 혁신적인 리더십만이 위기의 민주당을 구할 수 있다. 저는 청와대 혁신관리수석을 맡아 대한민국의 혁신을 주도했다. 관세청장, 국제청장,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을 맡

## 지역별 생활정치센터 인재 육성 컷오프 이전 단일화 적절치 않아 기초단체 공천, 당원 투표로 결정

# 강 이

## 기존 질서·낡은 시스템 다 고쳐야 단일화 관철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 호남 정치권 지역별명 실현시켜야

아 최우수 혁신기관으로 재탄생시킨 바 있다. 민주당의 혁신도 자신이다.  
-핵심 공약을 3개씩만 제시한다면.  
▲강=246개 지역구에 생활정치센터를 설치하고 민생의 현장에서 만나겠다. 인물을 키우겠다. 5년 뒤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들을 키워내고 지도자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해 국민으로부터 검증받도록 하겠다. 여기에 민주당 정책연구원을 독립시키는 등 집권역량을 키워나가겠다.  
▲이=‘공천혁명’과 ‘인사혁명’을 통해 훌륭한 인재들이 발탁되도록 하겠다. ‘한국형 예비장관제’를 시행, 국민적 현안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장관과 민주당 예비장관이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당의 수권능력을 인정받게 하겠다. 또한, 당의 주요사항은 디지털을 기반을 통해 ‘전당원 투표제’를 시행, 당원이 주인이 되는 분권형 정당을 만들겠다.  
-예비 경선 이전 후보 단일화에 대한 입장은. 두 사람 모두, 본선에 진출한다면 단일화를 할 것인지.  
▲강=예비 경선 전의 인위적인 단일화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컷-오프를 통해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이뤄지는 것도 방법이다. 광주 지역 의원 2명이 본선에 진출한다면 호남의 정치적 위상이 동반상승할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면서 단일화를 논의할 수 있다.  
▲이=뽕뽕 풍쳐도 어려운 선거인데 광주에서 두 사람이 예비 경선에 나오게 돼 지역민들께 죄송할 뿐이다. 끝까지 단일화 노력을 할 것이다. 호남의 민심을 돌로 나누는 일은 옳지도 않고 승산도 없다.  
-당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강=국민과 당이 요구하는 새로운 리더십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하기보다는 실천이 담보되고 지방자치와 분권의 가치에 어울려야 한다. 이에 대해 많은 당원들과 대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 3세대 민주당으로 바라는 일 크게 승리하겠다.  
▲이=민주당에 요구되는 당 대표는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을 성공시키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대안을 가져야 한다. 또, 낡은 계파주의에서 벗어나 당을 통합하고, 호남의 지지

를 전국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요구에 충분히 부응할 자신이 있으며 전국적 지지세가 응집되고 있다.  
-김한길 후보의 대선 패배 책임론에 대한 입장은.  
▲강=모두가 대선 패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김 후보의 책임론은 혁신 없이 지도부만 교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민주당 위기에 대한 안이한 생각이다. 지도부의 교체가 아닌 민주당을 바꿔야 한다.  
▲이=분열적 프레임으로는 당을 통합시킬 수 없다. 분열, 분파주의를 이용해 이득을 꾀해서는 안 된다. 혁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입장은.  
▲강=민주당 소속 단체장 104명 중 박원순 시장을 76번째로 만나면서 지방선거에 대한 많은 고민을 나눴다.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전 당원 투표로 당론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지난 대선에서 3인의 대통령 후보 모두가 약속한 사항이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는 원론적 차원에서 보면 폐지하는 게 옳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솔루션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안철수 전 교수와 어떻게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강=안철수 신당은 정당정치의 후퇴라고 본다. 안철수 후보가 원내로 들어온 뒤 새로운 정치를 향해 선의의 경쟁을 벌여가길 바란다. 민주당의 혁신으로 대응해 갈 것이다.  
▲이=안 전교수는 새 정치를 함께 이뤄나갈 동반자이자 선의의 경쟁자이다. 대표가 되면 민주당을 강도 높게 혁신해서 당이 새롭게 태어나도록 한 후에 안 전 교수가 민주당 입당을 정식으로 제안할 것이다.  
-호남 정치권이 풀어야 할 당면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강=경쟁력 약화가 당면 현안이다.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 스스로 도전과 응전을 통해 정치적 비전을 확보해야 한다. 사·도민도 인재를 키워나가는 토양을 제공해야 한다.  
▲이=지역 정치권이 민심을 제대로 담아 내지 못했다. 민주당도 위급한 순간마다 호남을 이용하긴 했지만, 호남의 열망을 현실에서

### 막으려던 민주당 5·4전대...단일화·당심 변수

## 12일 컷오프...3명·7명 압축

(대표) (최고위원)

## 21일 광주·전남 합동연설회

민주당합당 대표와 4명의 최고위원을 뽑는 5·4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9일 마감됨과 동시에 주자들간의 경선 레이스도 본격화됐다.  
우선 대표 경선은 ‘김한길 대세론’에 맞서 범주류 측에서 신계륜·강기정·이용섭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이번 경선에서는 대의원 표심이 승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주류 측 후보들이 단일화를 성사시킬 수 있느냐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류 후보단일화 가능하나=5·4 전대는 역대 전대와 달리 지역 순회 경선을 하지 않아, 선거 마지막까지 승부를 가늠하기 어렵다.  
‘중간투표’가 없어 다른 지역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선거인단 투표 시점이 내달 1~2일 권리당원 ARS 투표 및 여론조사, 전대일인 4일 대의원 현장투표식으로 막판에 몰려 있어, 단일화 변수는 최종일까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표 경선에 4명, 최고위원 경선에 11명이 출마함에 따라 오는 12일 중앙위원 현장투표로 예비경선(컷오프)을 치러, 각 3명과 7명의 본선 후보를 가린다.  
민주당은 예비경선에 앞서 대표 주자들에 한해, 오는 10일 오마이뉴스, 11일 MBN 및 채널A가 주관하는 3차례의 방송토론회를 마련했다.  
▷대의원 표심을 공략해야=이번

전대의 최종 항배는 대의원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인단 투표 방식 및 비중이 ‘대의원 50%+권리당원 30%+일반당원·국민 여론조사 20%’로 짜인 데 따른 것이다. 대의원 투표 비중은 작년 1·15와 6·9 전대의 30%에 비해 20%포인트나 높아졌다.  
대의원은 지역위원장이나 선임하고 지역위원장 분포에서 친노·주류 측이 비주류보다 앞서고 있어, 구도상으로는 주류 측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대의원 표심이 지역위원장의 명령대로만 움직인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특히 ‘인2표’ 등이었던 과거와 달리 당 대표 경선이 1인1표제로 치러져서 지역위원장의 의지가 대의원의 표로 그대로 반영되기 힘든 상황이다.  
▷13일부터 17개 지역 합동연설회=컷오프 이후 합동연설회는 13일 부산·경남을 시작으로 27일까지 전국 17개 지역을 돌며 진행된다.  
연설회는 ▲울산·대구경북(14일) ▲제주(16일) ▲세종(17일) ▲대전(18일) ▲충남·전북(20일) ▲광주·전남(21일) ▲충북(22일) ▲강원(26일) ▲서울·인천(27일) ▲경기(28일) 순으로 진행된다.  
최고위원 경선 출마자는 안민석·조경태·양승조·우원식·윤호중·유성열·신경민·황주홍·장하나 의원과 장영달 전 의원, 장경태 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등 11명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당합당 대표 후보자

이름	강기정	김한길	신계륜	이용섭
나이	49	60	59	62
역력	· 17·18·19대 의원 ·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 민주당합당 최고위원	· 15·16·17·19대 의원 · 문화관광부 장관 ·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민주당합당 최고위원	· 14·16·17·19대 의원 · 수도권청년비서실장 · 통일민주당 사무총장 · 민주당 비대위원회의 위원	· 행정자치부 장관 · 건설교통부 장관 · 18대·19대 의원 · 민주당 정책위의장
성향	범주류	비주류	범주류	범주류
슬로건	제7공화국을 여는 3세대 분권형 혁신정당	몽치고 혁신해서 이기는 민주당	혁신 대정당, 강한 민주당	민주당의 심장을 다시 뛰게하겠습니다
주요 공약	· 단일 대표제 및 권역별 최고위원 선출제 도입 · 권역별 비례 대표 제도 도입 · 지역 생활정치센터 및 생활정치포럼 설치	· 당직 직선제 및 정당원 투표제 · 혁신 민생과제에 대한 생활민생청 대안 발굴 · 민주당정책연구원 위상 강화	· 시민경제, 민생, 복지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민주당 · 노동이 있는 민주당의 구현 · 따뜻한 생활민생의 체현	· 생활정당 구현 · 계파정치 청산 · 공천혁명

\* 후보는 가나다 순

### 이전안내

##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산한약방

한약·국산·수입한약재 한방에 대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독활(땅두름)묘목 분양

**이전약도**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산한약방 광주결혼문화원

금호아파트 이마트  
서방사거리 육교정류소 06,19,83,180,184

계림사거리 버스정류소 54, 39, 87, 160, 419

산장입구 계림초등학교  
호남직업전문학교  
4,19정류소 55,98,151,518  
홍플러스 광주역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1동 553-14  
062)223-3399 / 223-6664

### 망치로 부셔먹는 독일전통과자

## Schnee Pang(슈니팡) & 버블팡(버블음료)

3호점 슈니팡&버블팡 메가박스 광주점 4월 5일(금) 14시

파레스 호텔 (구)련던약국사거리 민속촌

메가박스 개업기념품 슈니팡 3개 구매시 영화관(2중) 버블팡음료 1잔 무료증정 무진주

4호점 순천 연향점 4월 20일(토) 14시

5호점 광주 전남대점 4월 26일 8호점 광주 봉선점 4월 26일  
6호점 전남 함평점 4월 26일 9호점 광주 상무점 5월 3일  
7호점 광주 문흥점 4월 26일 10호점 광주 수완점 5월 3일

줄을 서서 사먹는 슈니팡&버블팡  
광주·전남 가맹점 모집  
062)523-1001, 010-5603-4709

# 임대

▶ 6층건물, 각층 110평, 옥상 광고탑  
6층고급주택  
▶ 병/의원, 약국, 커피숍, 편의점  
식당, 학원, 교회, 체인점 등등

## 목포 2호광장 4거리 코너 구, 맹수한의원 건물

# 매매

▶ 대지 144평, 건물 437평, 2004년 신축  
▶ 매매가 14억 5천만원 (일시불 조정가)

주인 직접 상담합니다. H.P : 010-3605-5000